

## 관계중독 척도개발 및 타당화<sup>†</sup>

이 인 재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양 난 미<sup>‡</sup>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본 연구는 한국 성인초기 남녀를 대상으로 관계중독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고 타당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관계중독의 개념을 구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58개의 예비문항을 제작하였다. 또한 척도의 요인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국내의 성인초기 남녀 324명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 16문항으로 이루어진 4개 요인이 확인되었다. 1요인은 '갈망'으로 친밀한 관계 경험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갈구함, 2요인은 '금단'으로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괴로움, 3요인은 '통제 결여'로 관계 경험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증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함, 4요인은 '손상'으로 관계 경험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적·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것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국내 성인초기 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 및 타당화를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이 적합함을 확인하였고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 증분 타당도 모두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4주 후 실시한 재검사를 통해 안정적인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시사점과 제한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요어: 관계중독 척도, 관계중독, 관계, 요인분석, 성인초기

<sup>†</sup>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1024807)  
<sup>‡</sup>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양난미, (52828) 경상남도 진주시 진주대로 501 경상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Tel: 055-772-1265, E-mail: behelper@gun.ac.kr

사람은 ‘관계’를 맺지 않고서는 혼자 살아 갈 수 없는 존재로, ‘관계’에 대한 기본 욕구를 지닌다(손승희, 2017). 이러한 관계는 사회를 살아가며 무수히 많고, 다양하게 맺게 되는 데 그 과정에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관계를 경험할 수도 있지만 부정적 관계를 경험하기도 한다(Friedman, Keane, & Resick, 2007). 그리고 긍정적 관계는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게 하고 스스로 가치 있다고 여길 수 있으며 높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등(이건성, 2009) 우리 삶에 긍정적인 감정들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반면, 부정적 관계는 타인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들고,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하여 삶에 어려움으로 나타나기도 한다(이태영, 심혜숙, 2011). 이처럼 관계는 우리 삶에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며 매우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도 하거니와 삶의 만족과 행복의 원천이 되는 요인이기 때문이다(김미선, 2017).

하지만 우리 삶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편으론 이에 중독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를 관계중독이라고 지칭하며 1928년 헝가리 심리학자인 Sandor Rado가 처음 언급하였다. 중독은 크게 물질중독과 행위중독으로 나뉘는데, 2011년 미국 중독의학회(American Society of Addiction Medicine)에서는 행위중독이라는 개념을 설정하였는데 이는 중독을 폭넓은 개념으로서 음식, 성, 쇼핑, 도박, 인터넷, 관계 등을 포함하였다(Smith, 2012). 이러한 행위중독에서 중독 대상은 그 자체가 해로운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건강한 삶과 행복을 위한 과정이자 수단이다. 하지만 과정과 목적이 전치되어 본래의 목적은 잊은 채 과정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릴 때 개

인의 삶의 질은 저하되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특히, 행위중독 중에서도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관계중독은 관계가 인간의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극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는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겉으로 보기에 관계중독의 특성들이 친근하고 따뜻하게 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중독에 비해 사회적 비판에서 피하기 쉽고 문제의 양상이 미묘하여 그 심각성이 간과될 위험이 있다(이수현, 2009; 이지원, 이기학, 2014; Sanches & John, 2019).

그렇기에 한편에선 관계중독을 과연 중독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들이 있다. 왜냐하면 관계는 누구나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가 중독으로 정의될 수 있는 것은 중독의 세 가지 특징을 공유하기 때문인데, 첫 번째는 정서적 친밀함에 강한 갈망이며, 두 번째는 갈망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것이며, 세 번째는 갈망을 통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삶에 부정적인 결과들이 나타난다는 점이다(Reynaud, Karila, Blecha, & Benyamina, 2010). 특히, 관계에 대한 중독적인 갈망은 마약류로 분류되며 물질중독의 하나인 아편과 비교했을 때, 두뇌에서 동일한 보상 경로를 가지고 있다는 연구결과(Fisher, Xu, Aron, & Brown 2016; Zhang & Zhang, 2016; Zou, Song, Zhang, & Zhang, 2016; Redcay & Simonetti: 2018에서 재인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이지 않은 과도한 측면을 가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계중독의 관계성을 알아본 선행연구들을 보았을 때, 관계중독은 우울, 자살 생각과 같이 개인 내적인 문제(정은정, 정남운, 2019; 하정민, 2017)에서

부터 테이트폭력과 같이 사회적인 문제에도 깊이 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은재, 2018; 이윤연, 2017; 장시은, 2016).

한편, 아직 국내에서 관계중독의 유병률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국 인구에서 유병률은 약 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젊은 대학생과 같은 특정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25%의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Cook, 1987; Sussman, Lisha, & Griffiths, 2011). 이러한 결과는 성인 초기가 관계에서의 친밀감이 중요한 시기이고 친밀감에 많은 관심을 나타내지만(Erik Erikson, 1968: 노안영, 강영신, 2003에서 재인용) 그러한 만큼 관계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받기도 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인 초기를 중심으로 관계중독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처럼 관계중독의 심각성이 점차적으로 인식되며 국내외에서 관계중독과 관련하여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오고 있는 실정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안되는 네 가지 한계점들이 있다. 첫째, 연구자마다 그들이 설명하고자 하는 임상적, 현상학적 측면에 따라 관계중독에 대한 정의가 다르다(Sanches & John, 2019). 관계중독을 사랑중독, 사람중독, 성중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써 이해하기도 하고(Whiteman & Peterson, 2004) 사랑중독과 관계중독이 같은 개념으로 쓰이기도 하며(Martin, 1994) 관계중독을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중독으로 쓰이기도 한다(이의선, 2005). 특히, 그 중에서도 많은 외국의 연구에서는 연인과의 ‘병리적인 사랑’에 초점을 맞추어 사랑중독(Love Addiction)으로 정의하고 있다(Corley & Hook, 2012; Griffin-Shelley, 2009; Redcay & Simonetti,

2018; Reynaud et al, 2010; Sanches & John, 2019; Sussman, 2010). 국내에서 진행된 대부분의 연구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 명칭이 관계중독이라고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병리적 사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해 김미림, 정여주, 이도연, 윤서연, 김옥미(2019)의 연구에서 관계중독의 개념을 도출하기 위한 델파이 연구를 진행하였고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다. “관계중독이란 특정 타인과의 관계에 지나친 욕구와 갈망을 가지며, 원하는 바가 관계를 통해 충족될 수 없고 오히려 해악을 주는 부정적인 결과가 나타나지만 그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매달리며 자신의 인지, 정서,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김미림 등(2019)은 연구를 통해 관계중독이란 연인이 대상인 사랑중독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정 타인’과의 관계라는 점을 짚고 있다.

둘째, 관계중독의 대상이 한정적이다. 김미림 등(2019)이 연구를 통해 관계중독의 개념을 넓히고 확립한 것은 의미 있지만 아쉬운 점으로는 특정한 대상으로 한정지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의선(2005)은 관계 중독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째는 관계를 가질 가능성에 중독되는 것이며 둘째는 특정인과의 구체적 관계에 중독되는 것이라고 정의내리고 있으며, 김하늘, 유제민(2017)의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을 파트너를 자주 교체하는 경향성이 있는 유형과 오랜 기간 한 대상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유형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비교 연구를 통해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상우(2014)는 관계중독의 대상을 관계중독의 핵심이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라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에서 경험자체에 중독되는 것이라고 언급하였

다. 이 외에도 다른 연구들에서 관계중독의 대상을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정짓지 않고 행위와 그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손승희, 2017; Sanches & John, 2019). 이러한 점은 “행위중독이란 행동패턴, 이에 해당하는 행위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Shaffer, 1996)라는 행위중독의 핵심적 정의와도 부합하는 부분이며 행위중독의 하나인 관계중독 역시 대상의 본질은 결국 관계 경험 자체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이의선(2005)의 연구나 김하늘, 유제민(2017)의 연구에서 나타나는 관계중독의 유형이나 혹은 아직까지 학문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연구자가 대학상담실과 병원장면에서 만나왔던 경험적인 사례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중독의 양상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관계중독의 대상의 본질은 과정/경험 자체에 있다는 앞선 연구들을 지지하고자 한다.

셋째, 관계중독의 구성개념에 있어서도 저자마다 대부분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연구에서는 김미림 등(2019)의 연구에서 델파이 연구를 통해 6개의 구성개념을 나타내었고, 국외의 연구에서는 Reynaud 등(2010)은 DSM-4의 물질의존을 토대로 사랑중독을 6가지 기준으로 정의 내렸으며, Redcay 와 Simonetti(2018)는 선행연구 리뷰와 전문가 피드백을 토대로 관계중독을 4개의 요인으로 묶어 나타냈다. 또한 Costa, Barberis, Griffiths, Benedetto 그리고 Ingrassia(2019)는 Griffiths(2005)의 중독 구성 요소 모델을 토대로 하여 사랑중독의 6가지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 역시 정의와 마찬가지로 특정한 사람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중독에 대해서는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 관계중독의 여러 유형을 포괄할 수 있는 구

성개념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 척도개발 이전에 선행되어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넷째, 관계중독의 대상을 특정한 연인관계나 사람이 아니라 관계 경험자체에 초점을 두었을 때,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관계중독 척도가 제한적이다. 국내의 여러 연구들에서 관계중독의 정의로는 전반적인 관계로 이해되는 정의를 사용하지만 실제 척도는 사랑중독을 사용하여 나타난 결과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관계중독 척도는 대부분 Peabody(2011)가 개발하고 이를 이수현(2009)이 번안 및 타당화한 척도나 이상우(2014)가 이수현(2009)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재번역, 재구성 및 타당화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드물게 Whiteman과 Pearson(1998)이 개발하고 김인화(2004)가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고 있다. 이 척도들은 저자의 임상적 경험에 근거하여 만들어져 학술적인 타당화 과정이 없었고 연인관계에 국한되어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Peabody(2011)의 문항의 경우 문항의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해 이상우(2014)가 타당화하였으나 이는 이미 개발되어있는 문항을 가지고 탐색적, 확인적 요인분석을 하였기에 문항 자체에 대한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고, 문항 자체가 원래 ‘예/아니오’만을 응답하기 위해 만들어졌기에 이를 5점 척도로 사용하는 근거와 타당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아직 국내에 번안되어 사용되지 않는 것지만 최근 국외에서 개발된 Redcay와 McMahon(2019)의 관계중독 척도와 Costa 등(2019)의 사랑중독 척도가 있는데 이 역시 특정한 파트너와의 관계를 대상으로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다수와의 관계 혹은 계속해서 파트너가 바뀌는 관

계에 대해서는 측정하기 어려우며 한국과 문화적인 특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사회과학연구에서 명확한 조작적 정의와 올바른 척도를 사용하는 것은 양질의 연구를 함에 있어 단단한 초석을 쌓는 것과 같다. 특히 최근 관계중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러 정의를 살펴보고 명확한 정의를 하여 척도를 개발하는 것은 관계중독과 관련된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개의 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 1에서는 관계중독의 정의와 구성개념을 정립하여 이를 반영한 관계중독 척도를 개발하였다. 선행연구와 기존 척도 그리고 경험적으로 관계중독적 경향이 있다고 판단되는 3인의 실제적인 경험을 참고하여 예비문항을 구성하였고, 내용 타당도 검증을 통해 선정된 최종 예비 문항을 대상으로 문항 분석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관계중독 척도를 개발하였다. 연구 2에서는 개발된 관계중독 척도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성개념 타당도 증분 타당도를 검증함으로써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이제까지 개발된 척도들과는 또 다른 의의를 가질 수 있는 관계중독 척도를 개발하여 앞으로의 다양하고 풍부한 연구를 지원하고 치료 장면에서의 긍정적 개입을 돕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아래와 같다.

첫째, 관계중독의 정의와 구성개념은 무엇인가?  
둘째, 관계중독 척도의 요인 및 문항의 구성은 어떠한가?  
셋째, 개발된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는 어떠한가?  
넷째, 개발된 척도의 증분 타당도는 어떠한가?

## 연구 1

### 방법

#### 구성개념 정의

관계중독이란 정의와 특성에 대해서는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에, 우선적으로 SCIENCE DIRECT, T&F, Springer Link에서 ‘love addiction’ 및 ‘Relationship addiction’으로 검색하여 주제에 맞는 9편의 국외 논문과 국내 논문 검색 사이트인 RISS에서 ‘사랑중독’ 및 ‘관계중독’으로 검색하여 주제에 맞는 국내 학술지 17편 및 박사학위 논문 1편, 석사학위논문 42편과 관계중독과 관련한 저서 10편을 살펴보고 대표적인 정의를 정리하였다(표 1.). 이를 활용하여 연구자가 이해한 관계중독의 조작적 정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 정의를 살펴본 결과, 각 연구자에 따라 관계중독의 범위와 대상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의 대상을 이상우(2014)가 언급한 바와 같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관계 경험 자체로 정의하였다. 이는 “행위중독이란 행동패턴, 이에 해당하는 과정에 의존되어 있는 상태.”(Shaffer, 1996)라는 행위중독의 핵심적 정의와도 부합하는 부분이며 행위중독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관계중독 역시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주요한 부분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경험 자체를 대상으로 바라보았을 때 경험을 추구하는 사람의 범위는 세부적인 사항이 조금씩 다를 뿐 결국 관계라는 경험 자체를 추구한다는 본질은 같다는 점에서 그

범위가 친구, 애인, 가족 등 어떤 범위에 있는가 보다 어떤 행위와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 내린 관계 중독에 대한 조작적 정의는 아래와 같다.

관계중독이란 관계에서 원하는 만족감을 얻기 위해 관계라는 경험자체를 과도하게 추구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시도는 얼마 되지 않아 좌절되고 부정적 결과를 가져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 경험(새롭게 맺는/지속적으로 맺는)에서 간헐적으로 주는 충족감과 만족감 그리고 관계가 없으면 나타나는 급단적 증상으로 인해 집착하고 의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삶에서 부정적 결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를 통제하고자 하나

관계를 하지 않을 때의 어려움을 견딜 수 없어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게 되고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

또한 관계중독의 구성개념에 있어서도 저자마다 대부분 유사하지만 조금씩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선행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국내 연구에서는 김미림 등(2019)의 연구에서 텔파이 연구를 통해 6개의 구성개념을 나타내었고, 국외의 연구에서는 Reynaud 등(2010)은 DSM-4의 물질의존을 토대로 사랑중독을 6가지 기준으로 정의 내렸으며, Redcay 와 Simonetti(2018)는 선행연구 리뷰와 전문가 피드백을 토대로 관계중독을 4개의 요인으로 묶어 나타냈다. 또한 Costa 등(2019)

표 1. 관계중독 관련 학자들간의 정의 및 특성(가나다, 알파벳 순)

김미선(2017)	관계중독은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양상이 중독이라는 방식으로 나타남으로써 관계의 질과 개인의 안녕을 저하시키는 병리적 관계방식이다.
박한나, 가요한(2017)	사랑하는 사람과의 친밀한 관계를 중독적인 방식으로 추구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해 관계와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병리적인 관계방식이다.
손승희(2017)	관계중독이란 연애관계에서 경험하는 느낌에 중독되어 사랑하는 대상이나 관계에 집착하는 양상으로, 사랑에 대한 감정 및 행동을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우상우(2014)	관계중독이라는 용어는 한 개인과 또 다른 타인으로 구성된 관계 자체에 중독적인 특성을 보이는 광범위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리고 관계중독의 핵심은 주체와 객체 사이에서 형성된 관계라는 것이며 그러한 관계에서 경험자체에 중독이 되는 것이다.
조윤옥(2014)	관계중독이란 관계를 맺는 일에 병리적인 현상을 보이는 것으로, 이는 인간 내면의 깊은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시도이다.
Bireda(2005)	관계중독은 어린 시절 좌절했던 사랑, 애정, 보살핌에 대한 욕구를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충족시키고자 하나, 오히려 어린 시절의 고통스러운 상황을 재경험하게 만드는 것이다.
Martin(1994)	관계중독이란 자신에게 해를 가하는 관계라도 상대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감에 사로잡히게 되고 이러한 결과로써 사랑에 대한 감정과 행동을 통제할 수 없게 된다고 정의한다.
Peabody(2011)	관계중독이란 중독 대상이 자신에게 해가 됨에도 불구하고 내면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또는 불편한 마음을 회피하기 위해 더욱 그 대상에게 집착하는 것이다.
Sanches & John(2019)	사랑중독은 하나 이상의 로맨틱 파트너에 대한 부적절하고 보편적이며 과도한 관심으로 특징 지워지는 행동 패턴으로 정의 될 수 있다. 이로 인해 통제력이 결여되고 다른 관심사와 행동이 포기되며 기타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된다.
Sussman(2010)	사랑중독은 1.일상 생활에 침투하고, 2.반복적인 제어 불능 행동을 포함하며, 3.부정적인 결과를 낳는 결과로 간주 될 수 있다. 사랑 중독의 핵심 요소는 어떻게 해서든지 로맨틱하다는 믿음이다.
Whiteman & Peterson (2004)	관계중독을 겪는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공허함을 채우고 안정을 얻으려는 모습을 보인다.

은 Griffiths(2005)의 중독 구성 요소 모델을 토대로 하여 사랑중독의 6가지 요인을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나타난 기준을 참고하여 공통적인 부분을 추출하고 또한 선행 기준이 사랑중독이라는 연인과의 관계에 치중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의 조작적 정의와 부합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아래와 같이 확립하고자 하였다.

- 갈망: 친밀한 관계 경험에 **과도하게 몰입되어** 시간적, 금전적, 정서적 에너지를 늘리면서 관계 경험을 충족하고자 하는 욕구.
- 금단: 관계 경험을 충족하지 못 할 때 느끼는 공허, 불안, 우울 등의 **심리적 증상**을 느끼며 이를 피하고자 함.
- 통제 결여: 관계 경험을 조절하거나 줄이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함.
- 손상: 관계 경험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적·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협에 빠뜨림**.

이상에서 나타난 관계중독의 조작적 정의와 구성개념은 표에서 나타난 선행연구와 이외에 관계중독의 특성에 대하여 논의한 다른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하여 구성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각 선행연구에서 언급한 관계중독의 특성을 의미단위로 바꾸고 공통요인으로 묶는 작업을 거쳤으며 이를 심리학과 교수 1인과 함께 논의하며 진행하였다. 초기의 묶은 결과는 총 18개의 범주였고 구체적으로는 취약한 경계선(정인숙, 2017), 의존(정인숙, 2017; May, 2007), 정체성 상실(정인숙, 2017), 관계에 대한 마술적 신념(Peele & Brodsky, 1992; Sussman, 2010), 애착없이 반복되는 관계(김하늘, 유제민, 2017; Reynaud et al., 2010), 불안정한 애정관계 반복(Reynaud et al., 2010), 금단(Costa et al., 2019; Reynaud et al., 2010), 공허함(정인숙, 2017; 조윤옥, 2014; 한진주, 2007; Adams & Robinson, 2001; Bireda, 2005; May, 2007; Whiteman & Peterson, 2004), 유기불안(정인숙, 2017; Reynaud et al., 2010), 갈망(한진

표 2. 관계중독 선행연구 기준

저자	1	2	3	4	5	6
김미림 등 (2019)	집착	일상생활 문제	금단	조절력상실	부적정서	재발
Reynaud 등(2010)	사랑하는 사람이 없을 때 금단증상 존재	관계에 상당한 시간을 보냄	사회적, 전문적, 여가 활동을 줄임	관계를 줄이거나 통제하려는 결실없는 노력	문제가 있음에도 관계를 추구	애착곤란 a. 내구성 있는 애착의 기간 없이 반복됨 b. 불안정한 애정 관계 반복
Redcay & Simonetti (2018)	혼자인 감정에 무너짐		손상	통제 결여	파트너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관계 추구	
Costa 등 (2019)	금단(신체적/심리적 증상)	관용(더 많은 시간 소비할 필요성)	갈등(모든 생활활동 방해)	통제 결여	정서적고통 대처	현저함

주, 2007; Adams & Robinson, 2001; Peabody, 2011; Reynaud et al., 2010; Sanches & John, 2019; Whiteman & Peterson, 2004), 현저함(Costa et al., 2019), 경험자체에 중독(우상우, 2014; Archibald, 1997), 통제결여(손승희, 2017; Costa et al., 2019; Redcay & McMahon, 2019; Reynaud et al., 2010; Sussman, 2010), 강박적 관계 추구(손승희, 2017; Martin, 1994; Peabody, 2011; Reynaud et al., 2010), 정서적 고통으로부터의 도피(한진주, 2007; Costa et al., 2019; May, 2007; Peabody, 2011; Redcay & McMahon, 2019), 관계에 많은 시간 소비(Costa et al., 2019; Reynaud et al., 2010), 일상의 포기(Reynaud et al., 2010; Sanches & John, 2019), 부정적 결과(Costa et al., 2019; Redcay & McMahon, 2019; Reynaud et al., 2010; Sussman, 2010)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다시 수차례 검토하여 다시 10개의 범주로 줄이는 과정을 거쳤다. 구체적으로는 공허, 불안, 갈망, 현저함, 정서적 고통으로부터의 도피, 통제 결여, 강박적 관계 추구, 의존, 일상의 포기, 부정적 결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선행연구의 고찰과 각 범주의 이동을 진행하여 최종적으로 상기와 같은 정의와 구성개념을 형성하게 되었다.

### 예비문항 선정

**사전 인터뷰.** 예비문항을 구성하기 전 본 연

구의 구성개념 4가지의 기준 중 3가지 이상의 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을 의도적 표집하고 3인을 인터뷰하였다. 이는 예비문항을 구성함에 있어 경험적 연구를 위해 이론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실제적인 목소리를 들어 좀 더 구체적이고 생생한 예비문항을 만들기 위함이었다. 인터뷰는 반구조화형식으로 진행하고 ‘관계에 몰두하여 일상을 포기하거나 힘들었던 경험은 무엇일까요’, ‘관계에 대한 나의 느낌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관계를 하지 않을 때는 어떤 경험을 하시나요’, ‘관계를 위해 어떠한 노력들을 하셨나요’ 등과 같은 질문들로 구성되었다. 이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경험을 간략히 기술하자면 ‘온전하지 못하게 느껴지는 나’, ‘타인을 통해 충족되는 느낌’, ‘관계를 놓치지 않기 위한 지나친 노력’, ‘손상이 있음에도 조절할 수 없음’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대상자의 경험들은 본 연구의 구성개념과 유사한 부분이 많았고 이를 문항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자 하였다. 사전인터뷰 대상 3인에 대한 일반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1차 예비문항 선정.** 관계중독에 대한 개념 정의를 근거로 관계중독과 관련된 14편의 선행연구와 10편의 저서 그리고 DSM-5의 비물질 관련장애 중 도박장애의 진단기준을 참고하여 총 58개의 1차 예비문항을 선정하였고 이후 심리학과 교수 1명, 중독 관련 논문 게재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

표 3. 사전인터뷰 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령	성별	결혼	직업	현재 관계의 손상
참여자1	25세	여	미혼	무직	X
참여자2	30세	남	미혼	무직	O
참여자3	23세	여	미혼	학생	O



지학과 교수 1명, 상담심리학 박사학위 소지자 2명과 함께 총 36개의 예비문항을 선정하였다. 또한 문항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료하게 구성하기 위해 국문학 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1명에게 문항 검토 후 수정하였다. 예비문항 선정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토대로 하였다. 첫째, 본 연구에서 정의한 관계중독의 구성개념과 하위요인의 개념에 수렴할 수 있도록 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둘째, 한국의 성인초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이므로, 한국 성인초기 남녀의 문화적 특성과 생활을 고려하여 문항의 내용을 구성한다. 셋째, 자기보고식 검사이기 때문에 문항을 이해하기 쉽고 명료하게 구성하며, 이중 부정문을 사용하지 않는다. 넷째, 예비문항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여 충분한 검토를 통해 내용 타당도를 확인한 이후 선별한다. 다섯째, 위의 네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부합하지 않는 문항은 사용하지 않는다. 예비문항을 작성함에 있어 사전 인터뷰에서 파악한 경험적 한국문화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하였다.

### 최종 예비문항 선정

다음으로 심리학 관련 국내 석사학위 소지자 27명과 박사과정 3명을 평정자로 구성하여 관계중독에 대한 개념 및 문항들을 제시하고, 각 문항이 관계중독의 개념을 적절하게 드러내고 있는지와 각 문항의 이해 정도를 평정하게 하였다. 문항 적절성은 ‘전혀 적절하지 않다’를 1점, ‘매우 적절하다’를 5점으로 구성하였고, 문항 이해도는 ‘전혀 이해되지 않는다’를 1점, ‘매우 잘 이해된다’를 5점으로 구성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문항이 관계중독을 표현하는데 적절하며 잘 이해된다는 것을 의미

하였다. 이를 통해 모든 결과가 평균 3점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그 중 비교적 낮은 점수를 나타낸 문항들을 재검토하여 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 연구대상

본 연구는 초기 성인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초기 성인기는 Levinson, Darrow와 Klein(1978)의 발달단계에 따라 17세에서 40세까지로 정의하였다. 다만 국내 아동복지법 기준 18세 미만으로 되어있는 점과 국내 대학 신입생의 연령이 18세부터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여 18세부터 초기 성인기로 포함하였다. 이에 해당하는 전국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기 미혼 남녀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예비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324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연령분포는 18-29세 259명(79.9%), 30-38세 56명(17.3%), 응답안함 9명(2.8%)이었고, 평균연령은 25.01세( $SD=4.64$ )로 나타났다. 남성은 99명(30.6%), 여성은 221명(68.2%), 응답안함 4명(1.2%)이었으며, 지역은 서울경기 75명(23.1%), 경상도 209명(64.5%), 전라도 13명(4.0%), 충청도 11명(3.4%), 강원도 3명(0.9%), 제주도 2명(0.6%), 응답안함 11명(3.4%)이었다.

### 측정도구

**관계중독(예비).** 관계중독에 대한 36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예비척도를 측정도구로 사용하였다. 응답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Likert식 5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

을수록 관계중독 경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 분석 방법

문항분석을 위해 빈도분석, 평균 및 표준편차, 상관분석, 신뢰도분석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SPSS 22.0을 사용해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관계중독 예비 문항의 요인 구조를 확인하였다. 요인추출 방법으로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였으며, 사회과학 연구의 특성상 하위 요인들이 서로 유의한 상관이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였기에 사각회전 방법을 사용하였다. 요인 수 결정을 위해 고유치와 스크리 도표, 각 문항의 공통분, 적합도 지수, 해석 가능성 등을 고려하였고, 내용 분석을 통해 각 요인의 명칭과 최종 문항을 선정하였다.

## 결 과

### 문항분석

문항의 변별도를 확인하기 위해 각 문항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검토하였다. 평균과 표준편차가 극단적일 경우 변별력을 떨어뜨리므로 삭제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탁진국, 2007). 각 문항의 평균이 1.5에서 4.5, 표준편차가 .78 이상이 되지 않는 극단적 3문항을 제거하였다(Meir & Gati, 1981). 정규 분포 확인을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는  $-0.16 \sim 1.56$ , 첨도는  $-1.14 \sim 2.41$ 에 분포하였다. 이같은 결과는 Curran, West와 Finch(1996)가 제시한 왜도 절대값 2이상, 첨도 절대값 7이상의 기준보다 적은 수치로 정규성을 가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관분석 실시 결과

문항 간 상관이 .7이상으로 높게 나타나 유사한 문항이라고 판단된 7개의 문항을 삭제하였다. 이에 전체 26개의 문항을 대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을 위해 자료의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표본적절성 측정치인 KMO값은 .95, Bartlett의 구형성 검증결과 값은  $\chi^2 = 5013.270 (p < .001)$ 로 나타나 요인구조가 없다는 영가설을 기각하므로 본 자료가 요인분석을 하기에 적합한 자료임을 확인하였다(양병화, 1998).

일반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유효한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정 값 이상의 고유치를 가진 요인들을 선택하는 방법과 스크리 도표를 사용하여 요인들을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Field, 2009). 먼저 요인 수를 지정하지 않고, 최대우도법과 사각회전을 사용하여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유치가 1보다 큰 요인은 4개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하여 여러 학자들은 요인의 수가 과대 또는 과소 추출됨을 경고하고 있다(O'Connor, 2000; Velicer & Jackson, 1990). 따라서 두 번째 방법으로 스크리 도표를 살펴보고, 예비 관계중독 척도의 스크리 도표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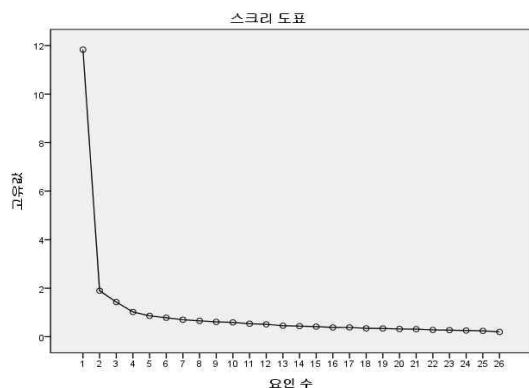


그림 1. 탐색적 요인분석의 스크리도표

표 4. 요인적합도의 통계적 검증

요인모형	$\chi^2$	df	p	N	RMSEA	$\Delta$ RMSEA
1요인	1234.906	299	.000	324	0.098	-
2요인	757.055	274	.000	324	0.074	0.024
3요인	529.817	250	.000	324	0.059	0.015
4요인	397.196	227	.000	324	0.048	0.011
5요인	318.657	205	.000	324	0.041	0.007

표 5. 예비 척도의 요인계수행렬

해당 요인	문항내용	패턴행렬				내적 합치도
통제 결여	p16 관계 경험에서 오는 감정 기록을 조절하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782	-.113	-.039	-.019	.860
	p20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한 행동을 바꾸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713	-.025	-.050	-.125	
	p15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데 소모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그만두고자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한다.	-.607	-.042	-.104	-.084	
	p18 관계보다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할 때도 통제되지 않는다.	-.474	-.133	-.104	-.219	
급단	p11 관계가 없으면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든다.	-.004	-.886	-.051	-.032	.872
	p7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면 공허하다.	-.025	-.724	.122	-.041	
	p8 나를 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060	-.711	-.057	-.083	
갈망	p10 혼자 있는 듯한 기분을 피하기 위해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고자 한다.	-.064	-.693	-.082	-.054	.787
	p2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과도한 노력(돈, 선물, 도움 등)을 쏟는다.	-.041	-.111	-.740	-.147	
	p3 하루종일 관계에 대해 생각한다.	-.271	-.113	-.625	-.127	
	p1 비어있는 모든 시간을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경험으로 채우고자 한다.	-.157	-.204	-.622	-.066	
손상	p4 지나치게 빠르고 쉽게 관계에 빠진다.	-.133	-.094	-.401	-.067	.833
	p22 친밀한 관계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또 다른 의미있는 관계(가족 관계, 직업적 관계 등)가 소홀해지거나 약화된다.	-.070	-.066	-.072	-.743	
	p23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데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어 다른 여가활동을 줄이거나 포기한다.	-.111	-.019	-.058	-.737	
	p24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것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다.	-.062	-.027	-.079	-.625	
p21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해 직업적/학업적 활동을 줄이거나 역할 수행의 어려움을 겪는다.	-.261	-.105	-.054	-.467		
고유치		7.675	1.351	1.132	.919	
설명변량(%)		47.97	8.45	7.07	5.75	
누적변량(%)		47.97	56.42	63.49	69.23	

스크리 도표 결과 적절한 요인의 수는 3~5개로 나타나 유효 요인의 수를 명확하게 나타내지 않았다. 스크리 도표를 통해 요인의 수를 결정하는 방법이 다소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 이에 최근에 활용되는 방법 중 하나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홍정순, 2017). 최대우도법을 사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행했을 경우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roximation) 적합도 지수가 산출된다. 요인의 수에 따른 적합도 지수를 비교하여 요인의 수를 결정하였다. 요인의 수에 따라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을 보면 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모형의 RMSEA 적합도 지수가 점차 좋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5요인 모형부터는 RMSEA 값의 변화가 .007로 .011보다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김주환, 김민규와 홍세희(2009)의 기준에 따르면, 요인의 수가 하나 증가할 때, 적합도 지수의 차이가 .01이상이어야 유의미하다고 하였다. 즉, 요인 수에 따른 적합도 차이가 .01이하면 변화가 거의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요인 수 증가에 따른 모형의 변화가 없다면 적은 수의 요인으로 모형을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렇기에 본 연구에서는 4요인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후부터는 4요인으로 지정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에 해당하는 문항을 선정할 때 요인 부하량 기준을 연구자가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순목(2000)이 제안한 기준을 사용하여 문항의 요인 부하량이 .40이상이면, 교차 요인 부하량이 .10이상 차이나고, 다른 요인에 .30이상 중복하여 적재되지 않는 문항만 추출하였다.

또한 각 요인의 내용, 문항들의 신뢰도, 동질성 및 차별성을 기준으로(Reise, Waler, & Comrey, 2000), 요인 내에서 보다 일치된 내용을 측정하는 문항을 선정하였고 해석이 어려운 문항은 제외시켰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총 16문항의 관계중독 척도를 구성하였다.

## 연구 2

### 방법

#### 확인적 요인분석 및 척도 타당화

관계중독 척도의 요인구조가 다른 표집에서도 타당한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새로운 표본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다른 표본을 대상으로도 모형이 적합한지 알아보기 위해 구조방정식의 모형적합도 지수를 확인하였다. 모형적합도 지수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카이제곱( $\chi^2/df$ )과 표본크기의 민감성과 모형의 간명성, 해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RMSEA, TLI, CFI, GFI를 확인하였다.  $\chi^2/df$ 은  $\chi^2$ 값이 작을수록 모델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며(배병렬, 2011), 일반적으로 2.0~3.0 수준이면 적절한 모델로 판단된다(문수백, 2009). 절대적 적합도 지수인 RMSEA는 .05이하 일 때 좋은 적합도, .08이하면 보통 적합도, .10이상이면 나쁜 적합도로 판정되며(Hu & Bentler, 1999)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TLI, CFI, GFI는 .90이상이면 좋은 적합도로 해석한다(배병렬, 2011). 다음으로 각 요인들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구성개념 타당도(construct validity) 검증을 위해 수렴 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판별 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를 확인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표준화 요인부하량이 유의하고 개념 신뢰도(construct reliability: CR)가 .70이상인 경우가 좋고, 판별 타당도는 평균분산추출(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값이 잠재변수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phi$ )보다 높을 때 판별 타당도가 있다고 본다(배병렬, 2011). 마지막으로 위계적 중다 회귀분석을 통해 기존의 RAQ척도와 관계중독 척도를 투입하여 증분 타당도를 확인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PASW Statistics 22.0과 AMOS 22.0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 연구대상

부산 경남에 거주하는 초기 성인기 남녀 314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예비문항에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제외한 283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연령분포는 18-29세 256명(90.5%), 30-39세 27명(9.5%)이었고, 평균연령은 23.18세( $SD=4.30$ )로 나타났다. 남성은 120명(42.4%), 여성은 163명(57.6%)이었으며, 학력은 고교 졸업 10명(3.5%), 대학 재학 215명(76%), 대학 졸업 49명(17.3%), 대학원 이상 9명(3.2%)이었다.

## 측정도구

**관계중독.**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결정한 관계중독을 묻는 총 16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응답방식은 자신의 생각을 잘 나타내는 정도에 맞게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

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경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갈망 .77, 금단 .84, 통제 결여 .85, 손상 .87, 전체 .92로 나타났다.

**RAQ.** RAQ는 Peabody(2011)가 관계중독을 경험하는 개인을 감별하기 위해 개발한 40문항의 척도를 이상우(2014)가 타당화 작업을 통해 재구성한 국내판 관계중독 질문지-30문항(RAQ-30)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중독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상우(201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성인에착불안.** 성인에착 척도는 Brennan, Clark과 Shaver(1998)이 개발한 친밀관계 경험검사(ECR)를 Fraley, Walker와 Brennan(2000)이 개정한 친밀관계 검사 개정판(Experiences in Close Relationships Revised: ECR-R)을 김성현(200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것에서 두 개의 하위요인 중 성인에착불안만을 사용하였다. 총 1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7점인 7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에착불안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성현(2004)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2로 나타났다.

**내면화된 수치심.** 내면화된 수치심은 Cook

(1989)의 수치심 척도 중 제5판 원문(Cook, 2001)을 이인숙과 최해림(2005)이 번안한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nternalized Shame Scale: IS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내면화된 수치심을 측정하는 24개 문항과 자존감에 대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존감 측정 문항은 한 방향으로만 응답하려는 경향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포함시킨 문항으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에서 가져온 것이다. 그래서 내면화된 수치심 점수는 자존감 측정 문항인 4, 9, 14, 18, 21, 28을 제외한 나머지 문항들의 점수합계이다. ‘그런 경우가 없다’가 0점, ‘거의 항상 그렇다’가 4점인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내면화된 수치심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인숙과 최해림(2005)의 연구에서 ISS의 요인분석 결과 부적절감, 공허, 자기처벌, 실수불안 네 가지 하위요인으로 나타났으며, Cronbach's  $\alpha$ 는 부적절감 .91, 공허감 .86, 자기처벌 .78, 실수불안 .83, 전체 .93이었으며 본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부적절감 .91, 공허감 .86, 자기처벌 .74, 실수불안 .75, 전체 .94로 나타났다.

**유기도식.** Young(1999)이 개발하고 조성호(2001)가 번안한 초기부적응도식 질문지 중에서 유기도식에 해당하는 문항 18개를 사용하였다. 유기도식은 생애 초기에 형성된 유기도식이 이후 경험하는 유기관련 상황에서 강한 부정적 정서와 함께 재경험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Young, Klosko, & Weishar, 2003).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아주 그렇다’가 6점인 리커트 6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유기도식의 특성이 더 잘 드러나고 있음

을 나타낸다. 조성호(2001)의 연구에서 유기도식에 대한 Cronbach's  $\alpha$ 는 보고되지 않았기에 같은 척도를 사용한 이설아, 박기환(2013)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5으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94로 나타났다.

**자기개념명확성.** 자기개념 명확성을 평가하기 위해 Campbell 등(1996)이 처음 개발한 자기개념 명확성 척도는 이후 요인분석을 통해 12문항으로 단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김대익(1998)이 번안한 문항을 사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리커트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에 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확신하는 정도와 스스로에 대한 내적일관성, 스스로에 대한 지식적 내용에 시간적 안정성을 나타내어 자기개념 명확성 수준이 높음을 뜻한다. Campbell 등(1996)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85로 나타났다.

**거부민감성.** 거부민감성은 박명진(2016)이 개발한 한국 대학생 거부민감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5개의 문항,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혀 그렇지 않다’가 1점, ‘매우 그렇다’가 5점인 리커트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타인에 대한 거부민감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박명진(2016)의 연구에서의 Cronbach's  $\alpha$ 는 예기분노 .89, 예기불안 .75, 과잉반응 .84, 거부지각 .74, 전체 .91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는 예기분노 .89, 예기불안 .81, 과잉반응 .85, 거부지각 .81, 전체 .92로 나타났다.

## 결 과

### 검사-재검사 신뢰도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관계중독 척도의 전체 문항의 총점 간 상관계수는 .826( $p < .01$ )으로 나타났다. 하위 요인들의 상관계수는 갈망 .699( $p < .01$ ), 금단 .640( $p < .01$ ), 통제 결여 .865( $p < .01$ ), 손상 .716( $p < .01$ )으로 나타났다. 전체 총점 간 상관계수 및 하위요인에서 유의한 상관을 보였기에 검사-재검사 신뢰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 확인적 요인분석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통해 관계중독 척도의 구성요인에 대해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4요인의 모델 적합도 지수를 살펴 본 결과 설정된 측정모형의 자유모수의 수는 38이었고,  $\chi^2 = 187.808$  ( $df = 98$ ,  $p < .001$ )으로 모집단의 모델오류가 0이라는 영가설은 기각되었다. 하지만  $\chi^2/df$ 는 1.916로 2보다 낮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 볼 수 있으며, GFI는 .924, CFI는 .961, TLI는 .952로 수용할만한 적합도를 보였고 RMSEA는 .057로 적절한 적합도를 보였다.

모형의 각 문항에 대한 표준화요인부하량은 .606에서 .866의 값을 보였다. 4개 하위요인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보았을 때 갈망은 금단과 .54 ( $p < .01$ ), 통제 결여와 .56( $p < .01$ ), 손상과 .59 ( $p < .01$ )의 상관을 보였고, 금단은 통제 결여와 .59 ( $p < .01$ ), 손상과 .56( $p < .01$ )의 상관을 보였고, 마지막으로 통제 결여는 손상과 .62( $p < .01$ )의 상관을 보였다. 모든 요인 간 상관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 구성개념 타당도 검증

다음으로 수렴 타당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먼저 C.R.(critical ratio)은 모두 유의하였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준화요인부하량은 .606에서 .866사이로 모두 .50이상으로 나타나 양호한 수렴 타당도를 보였다 (Bagozzi, Yi, & Phillips, 1991). 개념 신뢰도 CR의 값은 .78에서 .87의 값을 보였기에 모두 수렴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배병렬, 2011). 또한 개별 잠재변수의 분산추출지수(AVE)의 값들이 잠재변수간의 상관계수의 제곱보다 더 커야 한다(Fornell & Larcker, 1981)는 것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산추출지수(AVE)값이 모두 요인들 간 상관계수의 제곱값( $\rho^2$ )을 상회하였기에 모든 개념간의 판별 타당도도 표 7과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 관계중독 측정모형의 적합도 지수

모수	$\chi^2$	df	p	$\chi^2/df$	GFI	CFI	TLI	RMSEA
38	187.808	98	.000	1.916	.924	.961	.952	.057

표 7. 측정모형의 경로계수, 유의도, 수렴 타당도 및 변별 타당도

잠재변인	관측변인	경로계수		표준오차	C.R.	AVE	CR	
		비표준	표준					
갈망	→	p1	1.000	.629				
	→	p2	1.196	.797	.119	***	10.046	.47
	→	p3	.935	.695	.101	***	9.232	
	→	p4	.974	.606	.117	***	8.321	
금단	→	p7	1.000	.797				
	→	p8	.911	.724	.074	***	12.307	.57
	→	p10	.948	.679	.083	***	11.447	
	→	p11	.947	.817	.068	***	14.005	
통제 결여	→	p15	1.000	.765				
	→	p16	1.164	.749	.093	***	12.515	.59
	→	p18	1.054	.730	.087	***	12.170	
	→	p20	1.102	.837	.079	***	14.038	
손상	→	p21	1.000	.792				
	→	p22	.979	.705	.080	***	12.299	.62
	→	p23	1.088	.866	.069	***	15.661	
	→	p24	1.004	.788	.071	***	14.056	

표 8. 판별 타당도 검증

개념 간 상관			$\phi$	$\phi^2$	판별 타당도 해석	
갈망	↔	금단	갈망=.47	.54	.30	있음
		금단	금단=.57			
갈망	↔	통제 결여	갈망=.47	.56	.31	있음
		통제 결여	통제 결여=.59			
갈망	↔	손상	갈망=.47	.59	.35	있음
		손상	손상=.62			
금단	↔	통제 결여	금단=.57	.59	.35	있음
		통제 결여	통제 결여=.59			
금단	↔	손상	금단=.57	.56	.31	있음
		손상	손상=.62			
통제 결여	↔	손상	통제 결여=.59	.62	.38	있음
			손상=.62			



### 증분 타당도 검증

관계중독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검증하기 전 먼저 다른 척도들과의 상관을 확인 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관계중독 척도와 RAQ는 유의한 정적 상관( $r=.61, p<.01$ )이 있었고, 다양한 선행연구 결과들에서 확인된 애착불안( $r=.60, p<.01$ ), 내면화된 수치심( $r=.50, p<.01$ ), 유기도식( $r=.61, p<.01$ ), 거부민감성( $r=.49, p<.01$ )과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자기개념명확성( $r=-.41, p<.01$ )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을 보였다.

다음으로 관계중독 척도의 증분 타당도를 확인 하기 위해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독립변인으로 들어가는 관계중독과 RAQ의 상

관( $r=.61, p<.01$ ), 공차(.628), VIF(1.594) 값을 확인한 결과, 다중공선성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계중독이라는 척도와 유사하면서도 차이가 있고 동일하지 않은 척도를 종속변수로 선정하고자 여러 선행연구에서(고은지, 2018; 김은경, 2016; 박소정, 2019; 최연화, 2012) 관련성을 나타낸 변수인 애착불안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1단계에서 RAQ 척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관계중독 척도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9에 제시하였다. 1 단계에서 RAQ척도는 23.7%의 설명량을 보였고, 2단계에서 관계중독이 14.5% 증가된 설명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관계중독 척도는 기존의 RAQ척도가 애착불안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표 9. 타당도 검증을 위한 변인들간 상관

	1	2	3	4	5	6	7
1	-						
2	-.61**	-					
3	-.60**	-.49**	-				
4	-.50**	-.49**	-.55**	-			
5	-.61**	-.59**	-.65**	-.64**	-		
6	-.41**	-.42**	-.50**	-.54**	-.56**	-	
7	-.49**	-.60**	-.56**	-.50**	-.61**	-.50**	-

주1: 1.관계중독, 2.RAQ, 3.애착불안, 4.내면화된수치심, 5.유기도식, 6.자기개념명확성, 7.거부민감성

주2: \*\*  $p<.01$ .

표 10. 애착불안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D	$\beta$	$R^2$	$\Delta R^2$	F
애착불안	1단계						
	RAQ	.840	.090	.487	.237	.237	87.427***
	2단계						
	RAQ	.333	.102	.193	.383	.145	86.763***
	관계중독	.738	.091	.481			

\*\*\*  $p<.001$ .

표 11. 유기도식을 종속변수로 한 위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SD	$\beta$	$R^2$	$\Delta R^2$	F
유기도식	1단계						
	RAQ	.888	.072	.592	.351	.351	151.685***
	2단계						
	RAQ	.522	.084	.348	.451	.100	115.023***
	관계중독	.534	.075	.400			

\*\*\*  $p < .001$ .

나타낸다.

다음으로 종속변수의 차이에 따른 결과의 의미가 달라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애착불안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나타낸(박소정, 2019; 이성진, 2019; 이윤연, 2017) 유기도식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1단계에서 RAQ 척도를 투입하고, 2단계에서 관계중독 척도를 투입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에 제시하였다. 1단계에서 RAQ 척도는 35.1%의 설명량을 보였고, 2단계에서 관계중독이 10.0% 증가된 설명량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관계중독 척도는 기존의 RAQ 척도가 유기도식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는 고유의 변량을 가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 논 의

본 연구는 관계중독 척도를 개발하고 확인적 요인분석과 타당도 분석을 통해 개발된 척도가 신뢰롭고 타당한 요인 구조임을 확인하였다. 이론적으로 국내외의 선행연구를 개관하여 관계중독의 정의와 구성개념을 탐색하고 사전인터뷰를 통해 이론과 경험을 반영하는 예비문항을 구성하였다. 이후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관계중독을 4가지 요인으로 분류하였고 4주 간격으로 실시한 관

계중독 척도의 전체 문항의 총점간 상관을 통해 검사-재검사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분류된 4가지 요인이 적절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타당도 검증 결과 수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관계중독 척도의 증분 타당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통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계경험 자체를 중독의 대상으로 둔 관계중독 척도를 개발하였다. 기존에 관계중독을 측정하는 척도가 있었으나 문항의 내용 타당도가 검증되지 않았거나 중독의 대상이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로 한정되는 척도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4요인을 가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개발된 관계중독 척도는 갈망, 금단, 통제 결여, 손상의 4요인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하위요인을 살펴보면, 첫 번째 요인은 ‘과도한 추구’이다. 이는 친밀한 관계 경험에 과도하게 몰입하고 갈구하는 것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구성개념인 집착(김미림 외, 2019), 관계에 상당한 시간을 보냄, 문제가 있음에도 관계를 추구함(Reynaud et al., 2010), 파트너의 행동에도 불구하고 관계 추구(Redcay & Simonetti, 2018), 관계에 소모하는 시

간에 대한 관용성, 현저함(Costa et al., 2019)과 유사하다. 하지만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경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으며, 중독 대상이 물질 중독의 마약이나 과정 중독의 도박과 같이 일상생활에서 잘 나타나지 않는 대상들과는 달리 관계 경험은 삶을 살아가는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기에 극단성을 드러낼 수 있게 문항을 구성하였고 연구 1에서 문항 평균이 2.1에서 2.5 사이로 낮게 나타난 것을 보아 일반적인 관계에서 느끼는 정상적인 욕구와는 다르게 문항이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요인은 ‘금단’으로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 느끼는 심리적 피로움에 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구성개념인 금단, 부적정서(김미림 외, 2019), 금단 증상 존재(Reynaud et al., 2010), 혼자인 감정에 무너짐(Redcay & Simonetti, 2018), 금단(Costa et al., 2019)과 유사하다. 하지만 구체적인 문항으로 비교해보면 ‘Feel depressed in your partner’s absence’(Costa et al., 2019)와 같이 특정한 파트너가 존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고있는 반면 본 연구에서는 ‘관계 속에 있지 않을 때면 공허하다.’와 같이 관계 경험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느끼는 정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세 번째 요인은 ‘통제 결여’로 관계 경험을 조절하거나 축소하거나 중지시키려는 노력이 반복적으로 실패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구성개념인 조절력 상실, 재발(김미림 외, 2019), 관계를 줄이거나 통제하려는 결실 없는 노력(Reynaud et al., 2010), 통제 결여(Redcay & Simonetti, 2018), 통제 결여(Costa et al., 2019)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통제

결여가 단순히 통제되지 않음이라는 개념보다는 중독에서의 대상인 관계 경험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노력을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가 실패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네 번째 요인은 ‘손상’으로 관계 경험에 대한 몰입으로 인해 다른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적·직업적 기회를 상실하거나 위험에 빠뜨리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다.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구성개념인 일상생활문제(김미림 외, 2019), 사회적, 전문적, 여가 활동을 줄임(Reynaud et al., 2010), 손상(Redcay & Simonetti, 2018), 갈등(Costa et al., 2019)과 유사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의 손상은 심리적 손상보다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손상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였다.

둘째, 확인적 요인분석 및 수렴 타당도, 구성개념 타당도, 판별 타당도를 통하여 개발된 관계중독 척도가 적절한 타당도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GFI .924 TLI .952, CFI .961, RMSEA .057으로 양호한 적합도를 보여주었다. 이는 각각의 하위요인이 상호적이면서, 각 하위 요인을 통합할 수 있는 공통요인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수렴타당도는 모든 관측변수의 표준화 경로계수 값이 .50에서 .95의 범위에 속하는 .606에서 .866으로 나타났기에 Bagozzi 등(1991)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개념 타당도에서는 하위요인 각각의 개념 신뢰도에서 과도한 추구 .78, 금단 .84, 통제 결여 .85, 손상 .87로 나타나 기준치인 .7을 초과(배병렬, 2011)하여 타당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분산추출지수(AVE)값이 모두 요인들 간의 상관관계의 제곱값( $\phi^2$ )을 상회하였기에 모든 개념간의 판별 타당도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관계중독 척도와 다른 변인들의 상관 및 증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관계중독 척도는 기존의 이상우(2014)가 타당화한 RAQ 척도와 정적 상관을 나타냈고 성인애착불안, 내면화된 수치심, 유기도식, 거부민감성과 정적인 상관을, 자기개념 명확성과는 부적적인 상관을 나타내어 기존의 연구들과 합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에 많이 쓰이고 있는 RAQ 척도와 완전히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을 측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했고 증분 타당도를 확인한 결과 추가 설명력이 있음을 보아 기존 척도와는 다른 또 다른 의미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발된 관계중독 척도는 성인 초기의 연인관계에 제한되지 않은 관계 그 자체에 대한 중독을 측정하는 것이다. 즉, 대상의 범위가 대부분 연인관계인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연인관계뿐만 아니라 맺을 수 있는 모든 관계를 대상의 범위로 확장하였다. 또한, 중독의 대상이 특정한 파트너를 지칭하는 선행연구들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 대상은 특정한 파트너나 인물이 아니라 누군가와 맺게 되는 관계 경험 그 자체를 대상으로 초점을 맞추었다.

구체적인 문항을 살펴보면, Costa 등 5명(2019)의 연구에서 개발한 관계중독 척도에서는 'your partner'와 같이 연인을 대상으로 지칭하는 단어가 모든 문항에 포함되어 있어 특정한 연인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중독적 경험을 다루고 있다. Redcay와 McMahon(2019)의 연구에서는 문항 내에서 대상을 'them'으로 지칭하며 특정한 파트너보다 넓은 개념에서의 척도를 개발하였지만 이는 전반적인 관계에 대한 지칭이 아닌 다양한 연인

관계를 의미하는 'them'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I have problems with friends/family because I still have contact', 'I visit with my family or friends less so I can spend more time with them'과 같이 'them'과 다른 관계에 대하여 명확한 구분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상우(2014)가 번안 및 타당화한 관계중독 질문지에서는 '사랑에 빠지면', '사랑에 빠지거나 이성을 선택할 때'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인, 사랑, 이성관계와 같은 대상을 사용하지 않고 '관계 경험',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기 위한', '관계'와 같이 특정한 대상을 제한하지 않는 지칭을 사용하였으며, 지문을 활용하여 대상이 관계경험에 있음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본 척도는 사랑중독뿐만 아니라 더 넓게 관계경험 자체에 중독되어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을 판별함으로써 그들의 현 상태를 알 수 있고 현장에서 그에 따른 적절한 개입을 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사용하는 관계중독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사랑중독에 국한되어 있는 측면이 강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관계중독이라는 본래의 의미에 가까운 관계에 대한 중독을 알아볼 수 있는 척도를 개발하였고 관계중독에 대한 보다 넓은 정의와 기준을 확립하였다. 이제까지와는 다른 의미를 담고 있는 본 연구의 관계중독에 대한 정의와 척도는 앞으로 국내 관계중독에 관한 연구의 폭이 넓어질 수 있게 할 것이다.

둘째, 한국인의 경험에 기반한 관계중독 척도를 개발하였다는 점이다. 기존에 국내연구에서 사용되는 관계중독 척도들이 외국에서 개발된 문항을

번역하여 사용하여 문항개발 단계에서 문화적 타당성이 검증되지 않은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독적 관계 경험을 한 개인들을 사전인터뷰하고 이를 반영한 문항을 만들어 수차례 내용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특히, 관계속에 있지 않은 개인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항에 있어 사전인터뷰에서 나타난 표현을 기반으로 하였다. 해외의 연구에서는 ‘Feel depressed in your partner’s absence’(Costa et al., 2019) ‘When I can’t see them I feel worse’(Redcay & McMahan, 2019)와 같이 구체적인 개인의 표현이 나타나지 않는 것과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온전하지 못한 것 같은 기분’, ‘공허하다’, ‘무가치하게 느껴진다’와 같은 구체적인 표현을 나타낼 수 있었다. 더하여 통계적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기존에 Peabody(2011)의 관계중독 척도의 설명량 이외에 추가적인 설명량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렇게 개발된 관계중독 척도는 한국에서 중독적 관계 경험을 하고 있는 개인의 특성을 잘 나타낼 것이며 한국에서 관계중독적 경험을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셋째, 본 연구결과와 안정적인 통계치는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증명해 주는 자료이다.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척도는 앞으로 국내 관계중독에 관한 연구를 촉진시켜줄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관계중독의 치료에 관한 연구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제까지 국내외의 여러 선행연구에서 관계중독의 치료를 다루는 연구는 제한적이었는데, 그 이유로 관계중독의 분명하지 않은 정의와 확립되지 않은 기준을 이야기한다(Sanches & John, 2019). 이에 본 연구에서 확립된 정의와 타당한 척도를 개발한 것이 관계중독의 치료적 연

구를 하는 데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며 다소 생소한 관계중독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관계중독은 중독의 대상이 관계라는 특성상 중독 양상이 겉으로 보기에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고 스스로 알아차리기 어려워 그 심각성이 간과되기 쉽다(이수현, 2009; 이지원, 이기학, 2014). 그렇기에 본 연구의 자기보고식 척도를 통해 간단하게 자신의 정도를 가늠하고 치료의 동기를 부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치료의 성과를 확인하는 등 치료장면에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음에 그 의의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을 표집함에 있어 전국의 지역별 인구분포에 따른 표집이 되지 않았고 성인 초기의 남녀를 대상으로 지정하였으나 20대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점은 결과를 일반화하기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역과 균등한 연령분포를 고려하여 추가 타당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의 경우 성별 비율이 여성 68.2%, 남성 30.6%로 2배 이상의 차이가 있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의 경우에도 남성 120명(42.4%), 여성 163명(57.6%)으로 격차는 줄었지만 여성의 비율이 높았다. 이는 관계중독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고(Reynaud et al., 2010; 이수현, 2009) 성별에 따라 관계중독의 기제가 다를 수 있음을 나타내는 선행연구결과(우상우, 2014)를 보았을 때, 본 연구에 성별 차이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성별에 따른 척도의 타당성을

확인하고 다른 변인들과의 관계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사전인터뷰 3명을 대상으로 드러난 경험을 토대로 문항 개발에 적용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6-8명의 인원으로 진행하고 경험의 본질을 파악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에서도 10명 내외의 인원수로 진행하는 것에 비해 사전인터뷰의 인원이 비교적 적어 관계중독 경험의 본질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관계중독 경험의 본질에 대한 질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본 연구에서 개발한 관계중독 척도는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자기보고식 척도는 응답이 간편하고 측정이 쉽다는 장점이 있으나 응답자의 반응이 왜곡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관계중독을 측정하는 방법을 고려하여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참 고 문 헌

고은지 (2018). 대학생의 불안정 성인애착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 자기개념 명확성과 자기위로능력의 매개효과. 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대익 (1998). 한국인의 자아개념 명료성에 대한 연구: 성격, 자의식, 행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미림, 정여주, 이도연, 윤서연, 김옥미 (2019). 관계중독 개념 도출 델파이 연구. 열린교육연구, 27(3), 199-218.

김미선 (2017). 초등학교 고학년 아동의 사이버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3(4), 1-20.

김성현 (2004). 친밀 관계 경험 검사 개정판 타당화 연

구: 확증적 요인분석과 문항 반응 이론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경 (2016). 불안정 성인애착, 내면화된 수치심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은재 (2018). 성인 애착과 관계중독이 데이트폭력에 미치는 영향. 배재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주환, 김민규, 홍세희 (2009). 구조방정식모형으로 논문쓰기.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김하늘, 유제민 (2017). 성인애착, 유기도식 및 중독성격과 관계중독성 집착행동과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24(9), 485-507.

노안영, 강영신 (2003).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문수백 (2009). 구조방정식모델링의 이해와 적용. 서울: 학지사.

박명진 (2016). 대학생 거부민감성척도 개발 및 타당화. 경상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소정 (2019). 성인애착, 유기도식, 자기개념 명확성에 따른 관계중독 성향의 차이: 잠재 프로파일 분석의 적용.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한나, 가요한 (2017). 불안정한 초기대상관계가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28(3), 61-83.

배병렬 (2011). AMOS 19 구조방정식 모델링(원리와 실제). 서울: 청담.

손승희 (2017). 아동기의상과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3), 743-763.

양병화 (1998). 다변량 자료분석의 이해와 활용. 서울: 학지사.

이상우 (2014). 관계중독의 심리-사회적 특성과 이론적 모형개발. 경북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이건성 (2009). 정서경험이 대학생의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대인관계 능력 및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설아, 박기환 (2013). 유기 도식과 이성관계 만족도의 관계에서 인지적 정서 조절 전략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13(1), 1-17.

- 이성진 (2019). 자아분화와 관계중독의 관계에서 유기도식의 매개효과.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수현 (2009). 여대생의 대인불안, 대인관계유형, 낭만적 애착유형과 관계중독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순목 (2000). 요인분석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이윤연 (2017). 아동기 외상과 데이트 폭력 피해의 관계: 유기도식과 관계중독의 이중매개효과. 대전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의선 (2005). 관계중독의 기독교 상담적 치료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신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인숙, 최해림 (2005). 내면화된 수치심 척도(ISS)의 타당화 연구-애착, 과민성자기애, 외로움과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651-670.
- 이지원, 이기학 (2014). 불안정애착 및 심리적 고통이 관계중독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6(1), 65-95.
- 이태영, 심혜숙 (2011). 아동기 외상경험이 초기 성인기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에서 내면화된 수치심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2(6), 2273-2291.
- 장시은 (2016). 관계중독, 자기 및 타인용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관계중독, 자기 및 타인용서가 데이트 폭력에 미치는 영향. 삼육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정은정, 정남운 (2019). 관계중독이 우울에 미치는 영향: 거절민감성과 자기침묵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4(4), 947-968.
- 정인숙 (2017). 관계중독 회복을 위한 성격적 상담의 삼중구조 관계. 복음과 상담, 25(2), 241-273.
- 조성호 (2001). 한국판 도식질문지의 요인구조.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1), 177-192.
- 조운옥 (2014). 관계중독의 치유에 관한 연구. 신학과 실천, 38, 409-440.
- 최연화 (2012). 대학생의 자아분화, 성인애착, 관계중독과 친밀한 관계에 대한 두려움 간의 관계. 상담학연구, 13(2), 689-704.
- 탁진국 (2007). 심리검사(개발과 평가방법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하정민 (2017). 데이트 폭력 피해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 관계 중독과 분노의 매개 효과. 중앙대학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진주 (2007). 어린시절 경험과 관계중독의 패턴연구 - 에니어그램과 대상관계 이론적 접근 -. 에니어그램 연구, 4(2), 135-161.
- 홍정순 (2017). 진정성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9(1), 129-158.
- Adams, K. M., & Robinson, D. W. (2001). Shame Reduction, Affect Regulation, and Sexual Boundary Development: Essential Building Blocks of Sexual Addiction Treatmen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The Journal of Treatment & Prevention*, 8(1), 23-44.
- Archibald D. H. (1997). 숨겨진 중독 [Healing Life's Hidden Addictions]. (윤기남 역). 서울: 참미디어.
- Bagozzi, R. P., Yi, Y., & Phillips, L. W. (1991). Assessing construct validity in organizational research.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6(3), 421-458.
- Bireda, M. R. (2005). 사랑중독증 [Love addiction: A guide to emotional independence]. (신민섭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90년에 출판)
- Brennan, K. A., Clark, C. L., & Shaver, P. R. (1998). Self-report measurement of adult attachment: An interview overview. In J. A. Simpson & W. S. Rholes (eds.), *Attachment Theory and Close Relationships(pp.46-76)*. New York: Guilford Press
- Campbell, J. D., Trapnell, P. D., Heine, S. J., Katz, I. M., Lavallee, L. F., & Lehman, D. R. (1996). Self-concept clarity: Measurement, personality correlates, and cultural boundari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1), 141-156.
- Corley, M. D. & Hook, J. N. (2012). Women, Female Sex and Love Addicts, and Use of the Interne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9(1-2),

- 53-76.
- Costa, S., Barberis, N., Griffiths, M.D., Benedetto, L., & Ingrassia, M. (2019). The Love Addiction Inventory: Preliminary Findings of the Development Process and Psychometric Characteris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Mental Health and Addiction*, 1-18.
- Cook, D. R. (1987). Measuring shame: The internalized shame scale. *Alcoholism Treatment Quarterly*, 4(2), 197-215.
- Cook, D. R. (2001). *International Shame Scale: Technical manual*. New York : Multi Health System Inc.
- Curran, P., J., West, S. G., & Finch, J. F. (1996). The robustness of test statistics to nonnormality and specification error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Psychological methods*, 1(1), 16-29.
- Field, A. (2009). *Discovering statistics using SPSS*. London, Sage publications.
- Fisher, H. E., Xu, X., Aron, A., & Brown, L. L. (2016). Intense, passionate, romantic love: A natural addiction? How the fields that investigate romance and substance abuse can inform each other. *Frontiers in Psychology*, 7.
- Fornell, C. & Larcker, D. F. (1981). Evalua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s with unobservable variables and measurement err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8(1), 39-50.
- Fraley, R. C., Waller, N. G., & Brennan, K. A. (2000). An item response theory analysis of self-report measures of adult attach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8(2), 350-365.
- Friedman, M. J., Keane, T. M., & Resick, P. A. (Eds.). (2007). *Handbook of PTSD: Science and practice*. New York, Guilford Press.
- Griffin-Shelly, E. (2009). Ethical Issues in Sex and Love Addiction Treatmen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6(1), 32-54.
- Griffiths, M. (2005). A 'components' model of addiction within a biopsychosocial framework. *Journal of Substance Use*, 10(4), 191 - 197.
- Hu, L. T.,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1), 1-5.
- Levinson, D. J., Darrow, C. N., Klein, E. B. (1978). *The seasons of man's life*. New York: Alfred A.
- Martin, G. (1994). 좋은 것도 중독이 될 수 있다 [When Good Things Become Addictions]. 임금선 역, 서울: 생명의 말씀사.(원전은 1990에 출판)
- May, G. G. (2007). *Addiction and grace: Love and spirituality in the healing Of addictions*. California, HarperOne.
- Meir, E. I., & Gati, I. (1981). Guidelines for item selection in inventories yielding score profiles.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41(4), 1011-1016.
- O'conor, B. P. (2000). SPSS and SAS programs for determining the number of components using parallel analysis and Velicer's MAP test.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2(3), 396-402.
- Peabody, S. (2011). *Acciction to Love*. New York, Random house, Inc.
- Peele, S., & Brodsky, A. (1992). *Truth About Addiction and Recovery*. New York., Fireside Book.
- Redcay, A. & McMahon, S. (2019). Assessment of relationship addiction. *Sexual and Relationship Therapy*. <https://doi.org/10.1080/14681994.2019.1602258>
- Redcay, A. & Simonetti, C. (2018). Criteria for Love and Relationship Addiction: Distinguishing Love Addiction from Other Substance and Behavioral Addictions.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25(1), 80-95.



- Reise, S. P., Waller, N. G., & Comrey, A. L. (2000). Factor analysis and scale revision. *Psychological Assessment, 12*(3), 287-297.
- Reynaud M., Karila L., Blecha L., & Benyamina A. (2010). Is Love Passion an Addictive Disorder? *The American Journal of Drug and Alcohol Abuse, 36*(5), 261-267.
- Sanches M., & John, V.P. (2019). Treatment of love addiction: Current status and perspectives. *The European Journal of Psychiatry, 33*(1), 38-44.
- Shaffer, H.J. (1996). "Understanding the means and objects of addiction: Technology, the internet, and gambling". *Journal of Gambling Studies 12*(4), 461 - 469.
- Smith, D. E. (2012). The process addictions and the new ASAM definition of addiction. *Journal of Psychoactive Drugs, 44*(1), 1-4.
- Sussman, S. (2010). Love Addiction Definition, Etiology, Treatment. *Sexual Addiction & Compulsivity, 17*(1), 31-45.
- Sussman S., Lisha N., Griffiths M. (2011). Prevalence of the addictions: a problem of the majority or the minority? *Eval Health Professions, 34*(1), 3-56.
- Velicer, W. F., & Jackson, D. N. (1990). Component analysis versus common factor analysis: Some issues in selecting an appropriate procedure.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25*(1), 1-28.
- Whiteman, T., & Peterson, R. (2004). *사랑이라는 이름의 중독 [Victim of Love?]*. 김인화 역, 서울: 사랑플러스.(원전은 1998에 출판)
- Young, J. E. (1999). *Cognitive therapy for personality disorders: a schema-focused approach*. Sarasota, Professional Resource Exchange.
- Young, J. E., Klosko, J. s., Weishar, M. E. (2003). *Schma therapy: A practitioner' guide(rev. ed)*. new york: Guilford Press.
- Zou, Z., Song, H., Zhang, Y., & Zhang, X. (2016). Romantic love vs. drug addiction may inspire a new treatment for addiction. *Frontiers in Psychology, 7*, 1 - 12.

원고접수일: 2020년 2월 2일

논문심사일: 2020년 2월 17일

게재결정일: 2020년 3월 3일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Relationship Addiction Scale

InJae Lee                  Nanmee Yang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and validate a relationship addiction scale at Korean early adulthood. After thoroughly reviewing studies, a relationship addiction scale of 58 items was developed. Among 324 early adults, an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conducted, resulting in four factors consisting of 16 items each. Factor 1 'craving' is related to be excessive immersed in intimate relationship and Factor 2 'withdrawal' is related to psychological distress when not in a relationship. Factor 3 'lack of control' is related to failing repeatedly when controlling, reducing, or ending a relationship. and Factor 4 'damage' is focused on losing an opportunity or endangering other relationships such as a, job or obtaining an education. In sequence, 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nd a validity analysis were conducted on data obtained from 301 of the selected early adulthood subjects. The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confirmed the goodness-of-fit for the model, and convergent, discrimination, and incremental validity of it were confirmed. When a retest was conducted four weeks later, the test-retest reliability of the model was confirmed as well. Finally, the academic significance,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Keywords:* relationship addiction scale, relationship addiction, relationship, factor analysis, early adulthood